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순천시 신청사, 동측 부지로 확장 건립 발표

시민·공무원·전문가부지 선호 의견 일치... 2024년 준공 목표



순천시가 지난 4일 신년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순천시 신청사 건립 부지를 발표했다. 이날 현 청사에 인접한 동측 부지로 확장 건립하겠다는 발표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청사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청사 건립은 승주군과 순천시 통합에 맞춰 지난 1995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왔지만, 그동안 터를 정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가 이번 발표로 24년 만에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적립함과 동시에 현 청사를 기준으로 동

측, 남서측, 북측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확장부지로 선정 과정을 밟아 왔다.

부지 선정을 위해 시는 201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약 100회 이상의 설명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5300여 명의 시민, 1400여 명의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5299명 중 46%인 2377명이 동측 부지, 32%인 1676명이 남서측 부지, 21%인 1116명이 북측 부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 설문조사에서는 총 참여자 1393명 중 65%인 911명이 동측 부지, 23%인 329명이

북측 부지, 11%인 153명이 남서측 부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수, 기술사, 건축사 등 16개 분야 72명의 전문가 그룹이 부지 현장 실사와 자료 검토한 결과 73%인 53명에 달하는 전문가들도 동측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석 시장은 "동측 부지는 장래 확장성 공간적 균형, 부지의 정형화, 개방성, 경제성 측면과 교통 순환체계와 차량 접근성에 측면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며, "시민과 공무원 등 일반인의 50.1%, 전문가의 73.6%의 적정하다는 의견을 얻은 동측 부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시의회 보고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

허석 순천시장은 "오늘의 역사적인 신청사 건립부지 발표는 28만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미래 100년 시민의 집을 짓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4대 향만공사 공동 연구개발사업 아이디어 공모

여수광양향만공사

연구개발 사업 후보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향만에 관심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개인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 참여방법 및 상세내용은 각 향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pa.joint.research@gmail.com) 접수만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은 기관과 개인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며, 평가단의 공

정한 심사를 거쳐 기관과 개인 각각 우수제안 3건(최우수 1, 우수 2)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차민식 시장은 "4대 향만공사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국민과 함께 내딛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향만 및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의무를 다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정한 심사를 거쳐 기관과 개인 각각 우수제안 3건(최우수 1, 우수 2)의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차민식 시장은 "4대 향만공사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국민과 함께 내딛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며 "향만 및 해운물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의무를 다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한국차박물관 · 빛재에서 선물 받고 컬러링북 체험 즐기자

보성차밭 및 축제 풍성하게 즐기는 꿀팁 대방출



보성차밭 및 축제에 연일 구름인 파가 몰리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월 3일 기준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보성차밭 및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면 한국차박물관과 빛재를 찾아 볼 것을 추천한다.

이곳에는 빛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성차밭 및 축제에 연일 구름인 파가 몰리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월 3일 기준 15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보성차밭 및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기고 싶다면 한국차박물관과 빛재를 찾아 볼 것을 추천한다.

이곳에는 빛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빛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관광객이라면 차 박물관과 빛재에 들러 기분 좋고 향기로운 보성녹차도 구입하고, 더불어 도예 작가의 작품을 선물로 받으면 일석이조"라며 "이벤트는 물량 소진 시 까지 진행되므로 관심 있는 관광객이라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차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차 전문 박물관으로 차의 역사는 물론 차 관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병행하는 보성차의 랜드마크다. 또 한, '빛재'는 북방문화공간으로 전 시할과 세미나실, 군 직영 티 카페와 보성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광양시,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광양시는 올해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것으로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원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또 진정이나 시애틀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도 할 수 없어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싼 비용 때문에 출산가정에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정부지원 예산외에 민간 비용 부담을 줄여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 기준을 부모와 신생아에게 주된 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이어야 하며, 서비스 이용 시 총 10%의 금액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며, 관련서류를 구비해 시 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김선자 출산지원팀장은 "이번 지원이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이 카우치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1000만 관광시대 막을 열다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생태관광 플랫폼을 완성해 1,000만 관광객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2019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9년 순천방문의 해' 마케팅을 확대해 힐링여행지 순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순천여행 전담 여행사 운영, 여행사 초청 관광 설명회,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순천시가 가진 풍부한 생태관광자원으로 감성스토리 있는 여행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관광 성수기인 봄 가을 순천여행 꿀팁 주간 운영, 스탬프 투어 등 방문의 해 맞이 특별 이벤트와 읍면동의 구석구석 순천여행 홍보 모니터단(216명)과 순천 알리미(45명) 등 홍보요원들이 전국 순회

하며 순천의 사시사철 매력을 홍보해 나간다.

시는 생태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순천 방문의 해의 슬로건과 비를 제작하였고, 지난 10월 16일 서울에서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또한, 2019년 방문의 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도움이 되는 실행사업 등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순천방문의해 주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테마 10선 남도바닷길과 코리아둘레길 조성 등 구석구석 순천의 매력을 볼 수 있는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순천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인 월평유적의 유적발굴조사와, 정유재판

전적지 복원을 통한 역사공원조성을 추진하여 생태관광과 역사문화로 이루어지는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시 관광객들을 위한 콘텐츠 육성을 위해 2019년 세계절테마가 있는 봄꽃축제, 문화제 이벤트를 시작으로 여름 순천철도마을축제,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와 가을 순천 대표축제인 순천푸아트페스티벌,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순천만갈대축제 그리고 겨울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 큰잔치, 국가정원 별빛축제 등 한해 다채로운 축제를 알차게 준비해 관광객이 꼭 가보고 싶고 한번 더 가고 싶은 여행지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순천=황경석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불합치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